

〈경기상상캠퍼스 2018년 입주멤버십〉 입주심의 심층인터뷰 총평

2018년 1차 입주멤버십에 대한 심의는 크게 두가지의 기준을 가졌습니다. 첫 번째는 2017년 1기 입주멤버십의 장르나 분야에 다양성과 새로움을 부여할 수 있는 팀, 여기서 새로움은 비단 아이템만의 문제는 아니고, 그에 대한 두 번째 기준으로 입주 지원팀의 경험 역량과 그간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좀더 진일보한 협업 가능성과 네트워킹에 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.

총 2개의 룬을 사용할 팀으로 3인의 심의위원이 공통적으로 선정한 팀은 총 2팀입니다. 1. Tune. 10여년간 한국의 인디 음악(산업) 씬에서 활동한 뮤지션으로서, 개인의 관심사인 환경 문제에 관해 관련 분야 학업을 지속하며, 실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업의 현장에서(예, 록 페스티벌에서의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솔루션) 탐구와 실행을 해본 경험 지식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. 또한, 기존 입주멤버십에 음악 부문이 없다는 점도 평가되었으며, 개인의 창작 및 활동을 통해 입주 멤버십간의 전문성 발굴과 협업, 그리고 뮤직랩의 운영 방식과 업데이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예측과 판단입니다.

2. 달달별 문구점. 이 팀은 이미 출판 및 소셜미디어 소통에서 그간 축적해온 성과가 뚜렷합니다.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, 자신의 콘텐츠로 대중과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단순히 경험과 스킬의 전수는 어려워도, 입주 멤버십간 영감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그밖에 예비 후보팀의 선정은 상상캠퍼스의 실험적인 도전에 해당할만한 팀과 갤러리이자 작업실, 시민들과 만나는 워크숍의 현장으로서 하나의 공간을 복합적인 기능으로 수원의 다운타운에서 실제 운영해 본 팀을 선정했습니다.

종합적으로, 이번 입주지원팀들은 준비나 역량, 경험 면에서 편차가 두드러졌으며, 자신이 하는 일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하고 추상적인 태도를 보인 팀은 지양했습니다. 아울러, 균질화되기 쉬운 공동체의 약점에 개방성과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팀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〈2018년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멤버십 심의〉 심의위원 일동

2018. 2. 23.